

브라질,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

1년 이내에 3개 바이오디젤 설비 건설 ... 5700만리터 생산 가능

브라질이 1년 안에 3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바이오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10월27일 보도했다.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Petrobras는 10월26일 북동부 바이아주 칸데아아스와 세아라주 키샤다,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몬테스 클라로스 등 3곳에 2억7700만헤알(약 1억3100만달러)을 투자해 2007년 말까지 3개 바이오디젤 공장을 신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이 완공되면 5700만리터의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7만가구의 농가에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etrobras는 또 “현재 15개 정도의 지역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와 입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바이오디젤은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풍부한 농산물 자원에서 추출되는 기름 성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로, 브라질 정부는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바이오디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Petrobras는 이에 앞서 10월 중순 상파울루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존 디젤 62%와 바이오디젤 30%, 에탄올(Ethanol) 8%를 혼합한 연료를 2000여대의 버스에 공급하기로 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부터 바이오디젤을 2%씩 의무적으로 혼합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연간 8억5500만리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30>